



Discover the New Era

에스-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 기념식

새 시대의 더 큰 도전과 성장을 향해 날개를 펼치는
RUC-ODC 프로젝트, 그 눈부신 준공 기념식 현장의 기록을
이달 표지와 기사에 담았습니다.



JULY 2019

VOL.452



Discover the New Era
S-OIL New Complex Inauguration Ceremony

Oil to Chemical

석유에서 화학으로

새 시대의 더 큰 도전과 성장을 향해
날개를 펼치는 눈부신 여정





RUC·ODC 준공 기념식

- 04 찬란한 오늘**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 기념식 개최
- 06 영광의 현장** 감동과 환희로 가슴 뭉클한 준공 기념식 장면들
- 08 약속, 미래** 사우디아람코와 석유화학 2단계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 10 뜨거운 기록** 석유에서 화학으로 새 시대 여는 RUC·ODC 이모저모

12 후세인 에이 알 카타니 대표이사 CEO 취임



변화하는 우리

- 14 핵심가치 히어로**
[나눔] 장재운 사우(네트워크개발팀)
- 16 고전 속 핵심가치**
[협력] 일심일덕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힘
- 18 우수 협력업체**
 - 코리아인더스트리
 - 지우시스텍
- 20 달리는 희망 주유소**
도청주유소
- 22 가족 추억공작소**
최승필 사우(품질관리팀)
- 24 달콤한 퇴근길**
조덕기 사우(Alkylation1과)
[낙시]
- 26 함께하는 풍경**
 - 야구동호회 본사·온산공장 교류전
- 28 두런두런 이야기방**
 - 사랑하는 어머니 이야기
 -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 사연



함께 보는 세상

- 30 꽃청춘 수학여행**
7박8일 밤하늘 빛의 마술
[핀란드 오로라 탐방]
- 34 마을숲을 걷다**
바다 건너 들려오는 섬의 노래
[신안 박지도·반월도 당숲]
- 38 성장달력**
채움 위한 머릿속 청소
[사고력]
- 40 화학 속 인생법칙**
상호작용의 좋은 예
[호스트-게스트]
- 42 캔버스 연구실**
노란 가스등 &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테라스>



성장의 S-OIL

- 44 주요 경영활동**
 - S-OIL 챔피언십
- 46 단신**
 - 2018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국가서비스대상 2년 연속 주유소부문 대상
 -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장학금 전달
 -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발대식
- 48 햇살나눔**
 - HYC공장봉사단 복지관 어르신 동반 떡케이크 요리 활동
- 49 임직원 동정**
- 50 독자마당**

대표이사 CEO
후세인 에이 알 카타니



12

찬란한 오늘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 기념식 개최



프로젝트 성공에 빛나는 준공 기념식

6월 26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칼리드 압둘아지즈 알 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우리회사 최대주인 사우디아람코의 아민 H. 나세르 사장&CEO가 참석했다. 아울러 신규시설 건설에 참여한 국내의 협력업체와 거래처, 정유업계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 등 500여 명이 기념식장에 빼곡히 들어차 우리 새 공장의 성공적인 가동을 축하했다.

RUC·ODC 프로젝트로 최첨단 복합석유화학시설을 구축한 우리회사는 설비의 성공적 가동에 따라 '석유에서 화학으로' 혁신적 전환을 이뤘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핵심사업인 정유·유틸·석유화학 분야에서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에너지·화학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람코가 우리의 단독 대주주가 된 뒤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첫 사업이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원 투자로 화제를 모은 한편, 한-사우디 양국 간에 대표적인 경제 협력 성공사례로 평가 받으며 커다란 주목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참석한 가운데 RUC·ODC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기념하는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회사는 눈부신 도약의 성장사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석유에서 화학으로 새 시대 포문 활짝

잔사유 고도화시설(RUC)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기름인 잔사유를 재처리해 휘발유, 프로필렌을 뽑아내는 설비다. 신규 고도화시설 완공 이후 우리의 고도화 비율은 기존 22.1%에서 33.8%로 증가해 국내 최고 수준이다. 올레핀 하류시설(ODC)은 잔사유 분해시설에서 생산된 프로필렌을 투입해서 프로필렌옥사이드, 폴리프로필렌 같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든다.

우리회사가 도입한 잔사유 분해시설(HS-FCC)은 사우디아람코와 킹 파드석유광물대학교가 주도해 JX닛폰(JX Nippon), 악센(Axens)사 등과 개발한 신기술이다. 우리회사가 세계 최초로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해 더욱 의미가 크다. 이 설비는 고온의 촉매반응을 통해 잔사유를 휘발

유와 프로필렌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설비다. 여기에는 최첨단 공정 기술을 적용해 프로필렌 수율을 25%까지 높였고, 원유보다 값싼 고유황 잔사유를 사용해 원가 경쟁력 면에서도 탁월하다. 우리회사는 RUC·ODC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사업 분야에서 사업다각화를 실현해 나가는 가운데 석유화학 제품 중 파라자일렌(46%), 벤젠(17%)과 함께 올레핀 제품을 종전보다 4배 이상 증대해 37% 비율을 갖췄다.

영광의 현장

감동과 환희로 가슴 뭉클한 준공 기념식 장면들

▶
중층의 호위 속에 준공 기념식
현장으로 달리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주요 인사들과 수행단의 차량 행렬.



▶
빈틈없는 보안검색 속에
임직원과 고객, 관계자를
비롯한 내빈들이 속속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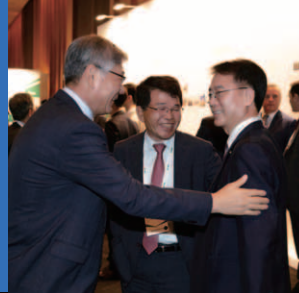
▶
경호처의 검색대를 거쳐
도착한 리셉션장에서
우리회사 역사를 기록한
보드에 눈길이 머문 내빈들.



▲
준공 기념식 행사장에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
준공 기념식에 펼쳐진
RUC·ODC 시설 전경
파노라마 영상. 고스란히
느껴지는 설비의 위용이
내빈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칼리드 압둘아지즈 알 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

“한국에서 건설한 수십 대의 선적과
유조선이 수십억 배럴의 사우디
원유를 사우디 항구에서 한국으로,
다시 세계로 실어 나르는 것은
전 세계에 좋은 분이 될 것입니다.”



사진 촬영·출처

전부순·대통령경호처 사진 공유 서비스 <효자동 사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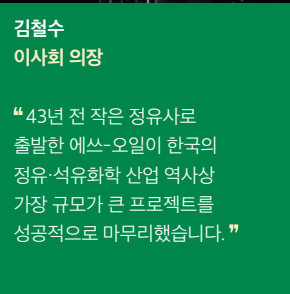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손수 버튼을 눌러 행사
정점의 장면 전환을
이끌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사우디 양국이 개혁의
새로운 길 앞에서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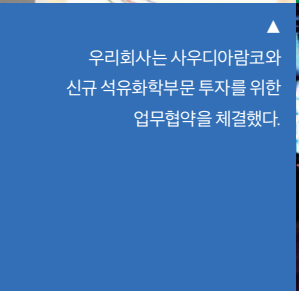
준공 기념식의 또 다른 백미로
참석자들을 환호하게 만든
홀로그램 장면.
작은 날갯짓으로부터 심 없이
성장해 온 하늘을 뒤덮는
매의 비상에 모두가 감탄사를 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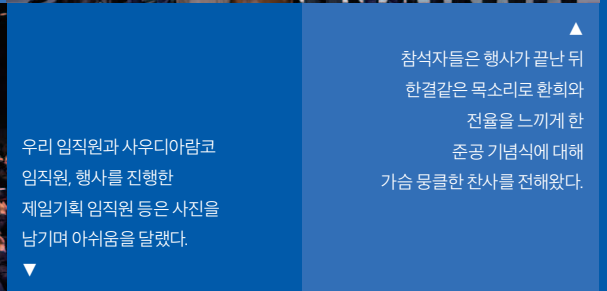
김철수
이사회 의장

“43년 전 작은 정유사로
출발한 에스-오일이 한국의
정유·석유화학 산업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준공 기념식이 끝났음에도
모두는 진한 감동과 서로에 대한
애정, 성공적인 행사의 여운에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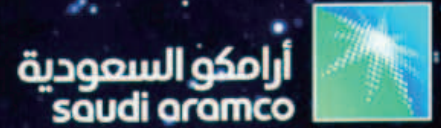
▲
우리회사는 사우디아람코와
신규 석유화학부문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한결같은 목소리로 환희와
전율을 느끼게 한
준공 기념식에 대해
가슴 뭉클한 찬사를 전해왔다.

우리 임직원과 사우디아람코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제일기획 임직원 등은 사진을
남기며 아쉬움을 달랬다.





MOU on Development of Oil to Chemicals Between Saudi Aramco and S-OIL

26th June 2019 | Seoul, Korea



약속, 미래

사우디아람코와 석유화학 2단계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비전 2025 향한 도약

RUC·ODC 프로젝트 성공에 이어 우리회사는 7조 원을 투자하는 석유화학 2단계 프로젝트에 관해 사우디아람코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람코 아민 H. 나세르 사장&CEO와 우리회사 김철수 이사회 의장은 6월 25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석유화학 2단계 투자인 SC&D(Steam Cracker & Olefin Downstream, 스팀 크래커·올레핀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와 사우디아람코가 개발한 TC2C 기술(Thermal

Crude to Chemicals, 원유→석유화학 물질로 전환) 도입 등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해 석유에서 화학으로(Oil to Chemical) 지평을 넓히는 본격적인 발걸음을 가속화하게 됐다.

SC&D프로젝트는 나프타와 부생가스를 원료로 연간 150만 톤 규모의 에틸렌 및 기타 석유화학 원재료를 생산하는 스팀 크래커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로 구성된다. 이로써 사우디아람코는 스팀크래커 운영 경험, 올레핀 다운스트림 공정·제품의 연구개발(R&D) 전문지식과 판매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회사가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회사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다양한 신기술과 공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을 활용해 사우디아람코의 신기술 상용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사우디아람코가 개발하고, 맥더모트(McDermott), 쉘브론 리무스 글로벌(Chevron Lummus Global)과 제휴해 더욱 발전·검증된 TC2C 기술 상용화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회사는 그동안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차례로 완수하며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다양한 신기술과 공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사우디아람코의 신기술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ㄴ

한국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고, 한국 국민의 재능은 끊임없는 영감을 줍니다. 에스-오일은 정유 분야 파트너십의 훌륭한 모델입니다.

ㄴ

아민 H. 나세르 사우디아람코 사장&CEO



사우디아람코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석유화학 기업으로, 최적의 루트를 통해 원유를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환하는 C2C(Crude oil into Chemicals) 기술 개발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람코의 장기 비전의 일환이다. TC2C는 사우디아람코가 진행 중인 다양한 CTC 연구 중 가장 진보한 기술로서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아민 H. 나세르 사우디아람코 사장&CEO 온산공장 방문

업무협약 체결식에 앞서 6월 24일 아민 H. 나세르 사우디아람코 사장&CEO는 온산공장을 방문해 우리 임직원과 만났다. 후세인 에이 알 카타니 CEO와 박봉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첫 공장 방문에 나선 나세르 사장&CEO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네면서 홍보관을 비롯한 공장 투어와 RUC·ODC 현장 브리핑으로 상세한 현황을 전했다. 나세르 사장&CEO는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고 공정 안정화에 힘쓰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표하고 향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의 번영과 성공을 이뤄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시아 넘어 글로벌 석유화학 강자로 우뚝

1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준공 기념식에서 2단계 석유화학 투자인 SC&D 프로젝트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회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에너지·화학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에 한층 바짝 다가서고 있다. SC&D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회사는 온산공장(울산시 울주군)에서 가까운 부지 약 40만㎡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매입했다. 대규모 투자를 연이어 단행하는 가운데 새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규모 단일 설비를 갖춰 경제성과 운영 효율성에서 막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아로마틱·올레핀 분야에서 글로벌 강자로 입지를 굳히고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일대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2단계 프로젝트 건설 기간 동안 연평균 270만 명, 상시 고용 400명 총원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업계 활성화와 수출 증대 등으로 국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 아민 H. 나세르 사우디아람코 사장&CEO가 온산공장 홍보관에서 전시 내용을 돌아본 뒤 전자방명록에 기념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

2 RUC·ODC 현장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 이후 안정적인 가동 상황에 관해 브리핑이 진행되는 모습

4 준공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아민 H. 나세르 사우디아람코 사장&CEO

뜨거운 기록

정유사업을 넘어 석유화학으로 지평을 넓히는 도전의 길에서 우리 회사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원유정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찌꺼기인 잔사유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RUC·ODC는 원유보다 싼 잔사유를 다시 한번 걸러 휘발유와 프로필렌 등 석유제품을 만들고, 다시 이를 원료로 폴리프로필렌(PP), 프로필렌옥사이드(PO)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석유화학 고도화 설비다. 

석유에서 화학으로
새 시대 여는 RUC·ODC
이모저모

숫자로 보는 RUC·ODC 건설공사 기록

투자금액

국내 정유·화학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5조 원

사용된 콘크리트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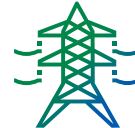
아파트 3천 세대
규모



44만 9천m³

전기통신선

온산공장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거리(7천900km) 이상



8천 200km

RUC·ODC 총 면적

축구장 약 68배



48만 5천m²

사용된 철골 수량

에펠탑 11개 규모



11만톤

배관 길이

온산공장 → 홍콩 거리



2천 100km

건설 투입 인력

하루 최대 1만7천 명



1만 7천명

RUC

잔사유 고도화시설



▼ 잔사유 탈황공정

▼ 잔사유 분해공정

**RUC (Residue Upgrading Complex)**

잔사유 고도화시설

잔사유 탈황공정

RHDS ; Residue Hydro-Desulfurization Unit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기름인 고유황 벙커C, 아스팔트 같은 잔사유에 포함된 황 등의 불순물을 수소를 이용해 제거하는 공정으로 후속 공정(HS-FCC)의 원료를 생산한다.

잔사유 분해공정

HS-FCC ; High Severity Fluid Catalytic Cracking Unit

탈황공정을 거쳐 불순물을 걸러낸 잔사유를 원료로 휘발유와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로 우리회사가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 한 차원 진보한 신기술로 프로필렌 수율을 25%까지 높였다.



▲ 폴리프로필렌 공정



▲ 프로필렌옥사이드 공정



올레핀 하류시설

ODC

ODC (Olefin Downstream Complex)

올레핀 하류시설

폴리프로필렌 공정 Polypropylene Plant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고 여타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내화학성과 내수성이 우수하며 일회용 주사기, 투명용기, 위생용 부직포, 포장용 필름, 보온병, 의료 기구, 약품용기 등에 두루 사용된다. RUC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을 중합해 연간 40만5천 톤의 PP를 생산, 70% 이상을 해외시장에 수출한다.

프로필렌옥사이드 공정 Propylene Oxide Plant

자동차, 건축자재, 가구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기초원료인 프로필렌옥사이드(PO)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신 공법(큐멘)을 도입해 PO 외 부산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 경제성이 뛰어나다. 특히 우리회사의 생산으로 수입품에 의존해온 우리나라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를 자급할 수 있게 됐다.



새 시대 향한 새로운 동행

후세인 에이 알 카타니 대표이사 CEO 취임



후세인 에이 알 카타니(Hussain A. Al-Qahtani) CEO가 새로운 수장으로 우리회사에 합류했다. 6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개최된 6월 13일 이사회에서 알 카타니 대표이사 CEO가 선임됐다.

알 카타니 신임 CEO는 2016년부터 사우디아람코의 자회사인 사우디아람코셀정유회사(SASREF) 대표이사를 맡아 글로벌 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의 전략적 성장과 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도 정통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알 카타니 CEO는 사우디 킹파드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스위스의 경영대학원인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최고경영자 수업을 받았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사우디아람코에서 29년 동안 근무하면서 생산·

엔지니어링·프로젝트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경영인으로서 리더십을 갖췄다.

사우디아람코 안부 정유공장 매니저를 거쳐 공정제어시스템 총괄과 국내 조인트벤처(JV) 관리 디렉터를 지내며 자산과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이전, 연구개발, 설비 계획 등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30년 가까이 석유화학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알 카타니 CEO는 다가오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대비해 석유화학 확장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회사의 전략적 성장과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낼 탁월한 책임자로 기대된다. 🌱



후세인 에이 알 카타니 CEO

Hussain A. Al-Qahtani

경력	2003-2006	정유·엔지니어링 감독관
	2007-2010	사다라케미컬컴퍼니(SADARA Chemical Company) 생산 디렉터
	2010-2012	원유 수급계획 매니저
	2012	얀부(Yanbu) 정유공장 매니저
	2013-2015	사우디아람코 공정제어시스템 헤드
	2015-2016	사우디아람코 국내 조인트벤처 관리 디렉터
	2016-2019	사우디아람코셀정유회사(SASREF) 대표이사
	2019. 6. 13-	S-OIL 주식회사 대표이사 CEO

학력	사우디아라비아 킹파드석유광물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스위스 경영대학원 국제경영개발원(IMD)



정성 가득

굽는 사랑

[나눔] 부문 표창자
장재운 사우(네트워크개발팀)



주요 공적

- ▶ 안정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 ▶ 나눔활동에 대한 임직원 및 가족들의 관심 참여 유도
- ▶ 2017 서울사회복지대회 서울시장상 수상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

사내 장수 봉사활동

꾸준한 나눔 활동이야말로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우리회사가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 역시 지속성과 안정성이다. 사내 다양한 봉사활동들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을 꼽자면 단연 사랑의 빵 활동이다. 11년이란 시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잘 숙성된 반죽처럼 끈기 있게 이어진 장재운 사우의 정성과 열정 덕분이다. 장재운 사우는 사랑의 빵 봉사활동이 처음 시작된 2008년부터 함께한 창단멤버나 다름없다.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채우는 유의미한 약속이 됐다.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늘 기다리고 설레는 시간입니다. 때마다 배



나눔은

삶의 쉽표이자
동력입니다

달되는 빵이 수혜자들 중 누군가에게는 작은 간식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비 같은 식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고 찾아준다는 정서적 위안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료에게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지는 않는다. 대신 꾸준하고 지속적인 참여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여긴다. 꾸준함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결과 사랑의 빵 봉사는 지역민의 깊은 신뢰를 얻는 생명력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장재운 사우는 2018 핵심가치 나눔 부문 CEO 표창자로 선정된 데 앞서 2017년에는 서울사회복지대회 서울시장상을 수상해 우리회사가 꾸준히 실천해온 나눔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확장하는 나눔 가치

사랑의 빵 봉사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다. 봉사자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 소외·저소득 이웃에게 제공한다. 한때는 배달까지 도맡아 진행했지만 인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는 빵 굽는 데 집중하고 있다. “빵 만들기부터 배달까지 도맡아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큰 결단 끝에 배달은 전문 대행사에 맡기고 우리는 빵을 굽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봉사자들도 더욱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담아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자발적 동참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원이 부족해 힘들 순간도 많았지만 장재운 사우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굽은일을 도맡아 하는 것도 다른 봉사

자들에게 힘든 기억보다 성취감과 보람을 안겨 주기 위함이다. 그런 모든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레시피만 있다면 제빵사 못지않게 번듯한 빵을 구워낼 만큼 실력도 향상됐다.

“나눔 활동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방향으로 깊이 사랑하면 다른 모든 방향으로의 사랑도 깊어진다’는 어느 글귀처럼 장재운 사위의 나눔에 대한 깊은 애정은 다른 봉사 활동 참여로까지 확대됐다. 현재 그는 사내 사진동호회 활동을 통해 일 년에 3~4회 담도페쇄환아 사진촬영에 참여하고 있다.

츄츄히 채우는 의미 있는 일상

장재운 사위의 시간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확보된 뒤에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마저 알차다.

“정시퇴근이 본격화되면서 동료와 어느 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뭘 해야 하나’하고 말이지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여러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삶이란 늘 배워도 부족한 것 같아요.”

주말 봉사활동 외에 틈날 때는 자녀와 도서관을 향한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동료들에게 동기부여 하듯 자녀에게도 훈수를 두는 대신 삶 자체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퇴근 뒤 공부, 사내 동호회, 봉사활동, 자녀와 보내는 시간들로 츄츄히 채워진 장재운 사위의 일상이 얼핏 보면 숨 돌릴 틈 없다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장재운 사위는 그 이유로 단연 사랑의 빵 나눔 활동을 꼽는다.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삶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봉사활동은 일상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시간이거든요.” 🌱

一心一德

핵심가치
[협력] 편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힘



장벽 무너뜨리는 단합의 저력

하(夏)나라 걸왕(桀王)과 은나라 주왕(紂王)은 중국 역사에서 폭군의 대명사로 꼽힌다. 특히 주왕은 빼어난 미인이었던 달기에게 홀딱 반해 주지육림(酒池肉林; 술로 호수를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든다는 뜻)을 만들어 매일 초호화 파티를 열었다. 비위를 잘 맞추는 간신은 중용하고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가차 없이 내쳤다. 은나라 주왕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주나라 무왕은 주왕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낙양(陽) 근처에 있는 맹진(孟津)에 3천여 명의 군사가 모여들었다. 무왕은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은나라의 도읍인 조가(朝歌)의 남쪽 들판까지 이르렀다. 비록 은나라가 망해가는 형국이었어도 제후국인 주나라의 군대 3천 명이 은나라의 십만 병력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명분이 필요했다. 무왕은 주왕의 죄를 낱알이 밝히고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외쳤다. “우리 우방의 제후들과 나의 병사들이여! 나의 맹세를 들어라.”로 시작하는 무왕의 선언문은 <서경(書經)>의 ‘태서(泰誓)’ 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하늘이 내게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을 꿈에 봤으며, 꿈을 깬 뒤 점을 쳐도 길조였다. 그러므로 은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주왕은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나 마음이 멀어지고 덕에서 떠나 있다. 나는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이 있으나 마음과 덕을 같이하고 있다. 비록 지극히 친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진 사람만 못한 것이다. (중략) 너희들은 덕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을 세워 같이 번영하도록 하라.”

결국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 주왕을 무너뜨리고 왕위에 올랐다. 이 글에 나오는 ‘덕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말이 일심일덕(一心一德)이다. 일을 도모할 때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일의 어렵고 쉬움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마음을 합치느냐에 달려 있다. 마음을 합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지만, 마음이 서로 어긋나면 제 아무리 쉬운 일도 서로 티격태격 갈등만 일으키다 망치게 된다.

대의를 좇는 지혜

전국시대 조나라 혜문왕(惠文王)의 신하 중 인상여(蔣相如)와 염파(廉頗)가 있었다. 인상여는 진나라를 상대로 뛰어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명장이었던 염파보다 지위가 더 높아졌다. 이 소식을 들은 염파 장군은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 “나는 싸움터를 누비며 성(城)을 쳐서 빼앗고 들에서 적을 무찔러 공을 세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인상여는 겨우 세 치 혀를 놀려 나보다 위자리에 앉다니, 언젠가 그놈을 혼내주겠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인상여는 일부러 염파를 피해 다녔다. 그 행동을 보다 못한 부하들이 따져 물었다. “지금 염파 장군이 대감을 모욕하고 나쁜 말을 퍼뜨리는데 대감께선 겁을 먹고 피하기만 하십니다. 저희는 창피해서 더 이상 대감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상여가 말했다. “나는 진나라 왕도 꾸짖고 부끄럽게 만든 사람인데 어찌 염파 장군이 두렵겠는가. 강한 진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나와 염파 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 싸워서 틈이 벌어지면 진나라 군사는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염파는 곧바로 인상여를 찾아가 섬돌 아래 무릎을 꿇었다. “제가 어리석어 대감의 높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부디 제게 벌을 주십시오.” 이후 두 사람은 진심으로 화해하고 평생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자존심보다 대의를 먼저 생각한 인상여의 깊은 생각과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한 염파 장군의 행동 덕에 조나라는 진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힘을 지닐 수 있었다.

어려운 위기 상황일수록 일심일덕(一心一德)의 가치는 빛을 발한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산도 움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달려 있다. 🌟



핵심가치 [협력]을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일심일덕 한나음 한뜻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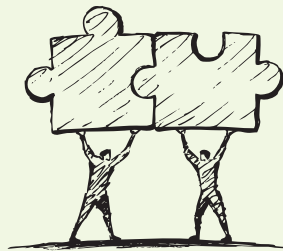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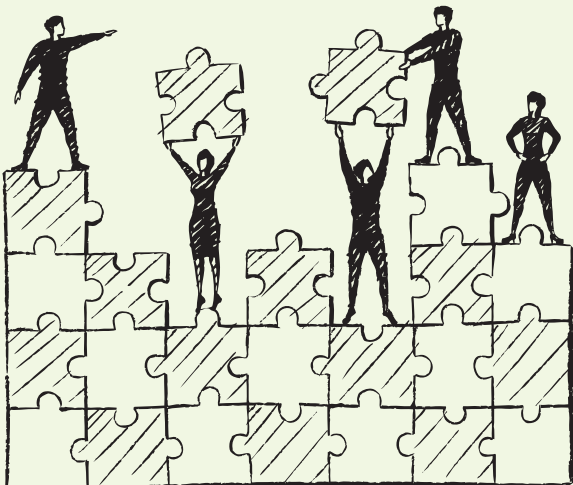
一心一德

一心一德

一心一德

一心一德

一心一德



글. 박수밀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의 말공부>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옛 공부발레들의 좌우명> 등

저서가 있다.

우리회사는 공급업체와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구매부문 선정 우수 협력업체 인증을 통해 혜택(benefit)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수 협력업체에는 인증서를 수여하며, 이들 명단을 전자구매시스템(e-Procurement System)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우수 협력업체 인증에 이름을 올린 총 9개 기업을 연중 지면에 순차로 소개한다.

01

[배관] 분야

코리아인더스트리 Korea Industry



“

세계 수준의 정유·석유화학 공장을 갖춘 에쓰-오일로부터 우수 협력업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상호협력의 원동력은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무자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깊은 배려를 느끼곤 합니다. 그 보람이 이어지도록 최고 제품과 신속한 대응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

코리아인더스트리
황현운 부장

제품 공급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사천리 책임 보증

코리아인더스트리는 배관 실링(Sealing)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미국 체스터톤(CHESTERTON)사의 한국 대리점이다. 40여 년 동안 정유·화학 공장, 화력·원자력 발전소 등 국내 산업체에 장비와 기술 공급을 지속하면서 출중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에 기초한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책임 있는 운영 지원으로 상호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코리아인더스트리와 최근 2억여 원 상당의 패킹(Packing), 가스켓(Gasket) 등 구매납품실적을 포함해 30여 년 동안 협력해 왔다. 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설치·가동에 이은 확인 점검과 사후 처리를 포괄하는 코리아인더스트리의 책임 보증 판매 프로그램은 공장 안정 운영의 소중한 동력이다.



6월

[촉매·화공약품] 인우코퍼레이션
[기계·장치] 준코퍼레이션

7월

[배관] 코리아인더스트리
[전기·계장] 지우시스텍

8월

[실험기기] 와이앤유사이언스
[기타자재] 형지엘리트

9월

[공사·정비용역] 포스코케미칼
[설계감리·공사관련용역] ABB코리아
[일반용역] 맥서브

02

[전기·계장] 분야

지우시스텍
Jiwoo Systech

66

전기·계장 분야에 뛰어난 기업들이
무수한 것으로 압니다. 그 가운데 작은
규모의 사업체로서 우수 협력업체 인증을
받았다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에쓰-오일이 견지하는 윤리와 투명성은
협력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증을 한층 더 발전하라는 독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99

지우시스텍
김주현 대표

탄탄한 기술력으로 이끄는
신속한 대처

지우시스텍은 전기·계장 분야의 프로세스 분석기 납품업체로서 2007년도에 설립됐다. 1990년 동종의 엔지니어링사에서부터 잔뼈가 굵은 대표자는 사업체 독립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회사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30년 이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전기·기계 장치 제조업체인 미국 아메텍(AMETEK) 제품을 비롯해 갈바닉(GALANIC), 케이패턴츠(K-Patents) 등을 취급한다.

지우시스텍의 최근 납품 실적은 보일러와 히터에 쓰이는 산소 분석기(O₂ Analyzer), 유황 회수공정(SRU)의 황화수소(H₂S)·이산화황(SO₂) 분석기 등이다. 제품에 관한 한 무한책임과 문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특히 외산 장비에 의존하는 분석기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술력을 발휘해 국산화 부품의 적용 영역을 넓힘으로써 발 빠른 대응을 현실화하고 있다. 🌟



기회로 얻는 성공 전율

도청주유소

기다림으로 기회를 잡기보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이에게 성공은 반가운 손짓을 한다. 올해 챔피언스 클럽 우수상을 수상한 도청주유소는 불안한 사업 환경 가운데서도 새로운 수익 창구를 찾아내며 약점을 극복한 좋은 본보기다.

왼쪽부터
윤병찬 주유원, 이금규 대표,
김정숙·정보선·김동인 주유원



틈새전략으로 거머쥔 성공 열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쉬지 못해 아내에게 미안했는데 마음의 빚을 덜었습니다.”

이금규 대표는 두 달 전 챔피언스 클럽 인센티브 투어로 다녀온 감 여행 소감으로 운을 댔다. 생애 첫 해외여행인 신혼여행도 꿈으로 갔다는 이 대표는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비행기에 올라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다.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이금규 대표 부부에게 이번 투어는 금보다 값진 시간이었다.

도청주유소는 목포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주유소 중 한 곳임에도 고정고객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목포IC는 차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 목포를 오가는 화물차 고객을 타깃으로 삼기 애매하고, 그렇다고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하는 일반 차량을 붙잡기도 쉽지 않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이 대표가 시선을 돌린 곳은 건설현장이었다. 지난해 도청주유소는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 세 곳으로 기름을 배달하며 바쁜 한 해를 보냈다. 덤프트럭, 굴삭기, 화물차 등 건설현장의 중장비 차량에 기름을 공급했다.

“몇 년 사이 신규 주유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목포 지역도 수요는 그대로인데 경쟁사는 늘고 있어 제로섬 게임이 심화되고 있지요. 일반 고객에만 의존하기에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에 건설현장과 계약을 맺어 기름을 정기적으로 납품하게 됐습니다.”

도청주유소는 ‘정확한 배달’과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렇게 구축한 신뢰

덕분에 완공 뒤 계약이 만료돼도 다음 시공 때 건설사에서 다시 도청주유소를 찾는다.

“우리회사 기름의 뛰어난 연비는 특히 중장비 차량 고객들이 알아줍니다. 화물차는 일정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반복해서 오가는 경우가 많아 연비가 확연히 비교되거든요.”

오늘을 함께 만든 사람들

주유소에 화물차 한 대가 들어서자 김동인 주유원이 안내에 나섰다. 고객과 몇 마디 주고받던 그는 바쁜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파스 한 장을 손에 들고 나왔다. “고객님이 장시간 운전한 탓에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하셔서요.” 환하게 웃으며 뒤이어 들어오는 차량으로 곧장 뛰어간다.

이금규 대표는 고객 응대를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맡긴다.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직원이므로 누구보다 현장을 더 잘 알고 신속히 대처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구관

도청주유소 성공 전략 3

1 넓은 부지와 세차시설로 차별화

주유기 12대 세차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넓은 부지에 화물차를 최대 7대까지 들일 수 있고 5대까지 동시 주유가 가능하다.

2 능숙한 서비스로 회원율 상승

베테랑 직원들은 경력만큼 능숙한 서비스를 자랑한다. 안내, 주유, 배웅까지 1분이면 충분하다. 한꺼번에 고객이 몰려와도 5분이면 5대를 나긋히 소화해내며 빠른 회전율로 고객을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3 약점은 틈새전략으로 극복

차량 통행이 많은 곳과는 다소 떨어진 지리적 취약점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불안정한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이금규 대표는 인근 건설현장과 계약해 기름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크게 올렸다.

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오래 일해 온 직원일수록 이 믿음은 유효하다.

“고객은 새로운 직원보다 익숙한 직원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우리 주유소에서 7년간 일해 온 김정숙 주유원도 친절함은 물론, 유머감각도 좋아 단골 고객을 모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도청주유소가 설립된 지 8년,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6년을 웃돈다. 동고동락한 시간만큼 힘든 일도, 보람찬 일도 많았다. 도청주유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성복 사우(목포지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 지사 직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보내온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동지애를 넘어 전우애가 생겼다고 말한다. 이금규 대표의 바람은 소박하면서 원대하다. 도청주유소의 오늘을 만들어준 고마운 이들과 안정적으로 오래, 함께하는 것이다. 🌻



도청주유소

📍 전남 목포시 녹색로 139
☎ 061-285-5187





오늘도 너만을 응원해

최승필 사우(품질관리팀)
가족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열렬한 팬이자,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삶의 동력이다. 강력한 팬심으로 평생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최승필 사우 가족을 만났다.

손 하트와 함께 사랑도 활짝

조명을 밝힌 거울 앞에서 최승필 사우 가족이 한껏
들뜬 표정으로 매무새를 정리한다. 가족이 준비한
보랏빛 의상 덕분에 한층 세련되고 화사한 분위기
다. 남다른 감각을 자랑하는 딸 최지영 씨의 아이디어
다. 아내 이영주 씨와 아들 최지승 씨도 연신 서로
의 머리와 의상을 손봐준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딸, 군 제대 뒤 복학해 학업
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아들이 모처럼 시간을
낸 자리인 만큼 최승필 사우는 이날 촬영이 더욱 설
레고 뜻깊다. 부모의 허리춤에 섰던 어린 자녀가 어
느덧 장성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니 기분이 새롭
다. 촬영을 핑계로 팔짱을 끼며 서로 마주보니 입가

건강한 에너지 넘치는 부부

최승필 사우 부부는 우리회사에서 근무하며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리는 바람에 일찍이 경력이 단절된 아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많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장성하면 미술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는 아내를 적극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늦게나마 대학에 진학해 동양화를 전공하며 꿈을 이룬 아내는 2016년 서양화를 전공한 딸과 함께 모녀 합동 전시도 열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도 좋지만 이영주라는 사람으로도 살고 싶었어요. 남편 도움이 컸죠.”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아내 이영주 씨는 지금도 전시, 강연, 저술 등 전공을 살려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적 영감을 주제로 한 책을 출간한다. 한편 최승필 사우는 오랜 취미인 철인3종경기 사내 동호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 아이언맨 대회에는 무려 15년째 개근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 “아무도 못 말린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그 열정과 성실함을 응원한다. 최승필 사우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서로의 영원한 응원군

“부모님이 각자 또 같이 즐기며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보면 저희도 닮고 싶어요.” 딸 최지영 씨와 아들 최지승 씨의 롤모델은 부모님이다. 어릴 때부터 교환학생, 유학으로 국외생활이 길었다는 최지영 씨는 미대를 졸업한 뒤 스튜어디스로도 근무했다. 꿈 많고 열정 넘치는 모습이 부모님을 꼭 빼닮았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인생의 또 다른 장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최지영 씨의 얼굴에 기대가 어린다. 4인4색 개성 강한 최승필 사우 가족은 각자 목표도 계획도 다르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존중과 격려로 꿈을 북돋운다. 특히 복학한 뒤 조소과로 전공을 전향한 아들 최지승 씨는 진로 변경을 고민하던 때 부모님이 해주신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어머니가 사람은 저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릇이 클수록 채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제 선택을 응원해주셨죠. 아버지도 언젠게 지원군이 돼 줄 테니 후회 없이 열정을 쏟아부으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최승필 사우 가족은 더 큰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지금까지 그래왔듯, 딱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을 오늘의 행복이 먼 미래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에는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 최지승 씨가 촬영이 영 어색한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자 모니터로 사진을 확인하던 최지영 씨가 동생을 비롯해 가족들 포즈를 꼼꼼히 확인해준다.

“손가락 하트 만들어볼까요?”

사진가의 주문에 최승필 사위가 엄지와 검지로 만든 양중맞은 하트를 아내에게 내민다. 아내 이영주 씨가 부끄러워하며 렌즈를 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세게 끌어안으며 “사랑해”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전한다. 자세 한번 바꿨을 뿐인데 스튜디오가 온통 애정으로 가득하다.

서로에게 평생

멋진 롤모델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최승필 사우
아내 이영주 씨
딸 최지영 씨
아들 최지승 씨





인생 낚는 기다림

낚시

글: 조덕기(Alkylation1과)
사진: 디자인소호

시간이 멈춘 사색

민물낚시에 빠진 지 어언 20년이다. 앞서 10년쯤 바다낚시를 즐긴 뒤다. 배를 타고 나가거나 갯바위, 방파제 등에 서 있어야 하는 바다낚시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다. 체력소모가 만만치 않다. 그에 비해 민물은 사색을 부른다. 연못, 저수지, 계곡지 등이 어울린 자연은 낚시꾼을 감싸 안는 모양새다. 그 속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으면 시간이 멈추는 기분이다. 두서 없는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문다. 새 소리, 풀벌레 소리, 그마저도 없으면 바람 스치는 소리에 내 안의 심연과 만난다. 힐링의 순간이다.

모닝근무를 마치면 으레 출조한다. 2~3일에 걸쳐 낚시할 수 있는 기회다. 조황 정보와 낚시 환경을 살피고, 날씨도 따져본다. 각별히 개조한 승합차는 행선지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최근 출조한 경북 영천은 국내에서 저수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1천여 개의 크고 작은 민물 터가 있다. 이날 출조에서는 한여름을 향해가는 시점이라 뜨거운 해가 저물고서야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했다.

최근 주말에는 충남 공주에서 열린 낚시대회에 스태프 자격으로 참가했다. 우수한 낚



시 메이커의 스태프 공모에서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친 끝에 활동 자격을 얻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기초로 제품 개발이나 테스트에 참여하고, 스폰서 대회에 나가 행사 진행을 돕기도 한다. 이런 활동을 계기로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됐다. 경험만으로 낚시 실력을 담보할 수는 없다. 문헌을 찾아 나름의 분석을 곁들이고, 낚시 관련한 간행물에 기고도 하면서 전문성을 닦는다.

자연에 동화되는 순간

수년 전 여름에 떠난 계곡지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근처에 민가 한 채 없던 그곳은 해가 지자 암흑이었다. 그 속에서 낚싯대를 펼치고 새벽을 기다리자니 조용히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눈앞에 풍경이 한 폭의 산수화였다. 경남 양산 준계곡지의 경험도 생생하다. 두어 번 출조에도 빈손으로 돌아온 곳이었는데 노력이 가상했는지 끝내 40cm 봉어 월척을 비롯해 여러 번 손맛을 봤다.

입문자라면 저렴한 장비를 갖춘 뒤 동호회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공개된 정보부터 살피는 것이 좋다. 포털사이트 내에 동지를 튼 커뮤니티나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한 모임도 눈여겨보길 바란다. 그 가운데 서울·경기권에는 관리형 낚시터가 많아 남녀노소 접근이 용이하다. 펜션이나 방갈로를 연계 운영하는 낚시터도 주목할 만하다.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좋다. 고기 낚는 즐거움을 넘어 자연 속에서 가족애를 돈우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민물낚시를 거듭할수록 성찰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을 세심히 돌아보게 됐다. 낚시 현장에 도착하면 눈으로 포인트 선정을 한 뒤 주변 정리에 힘을 쏟는다. 지저분하게 침수된 수초를 숙아내고 저수지 둘레의 쓰레기를 남김없이 줍는다. 그리고 나서야 낚싯대를 펼치고 미끼 채집을 준비한다.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보다 자연에 동화되는 순간이 더 행복함을 안다. 

낚시 정보상자

COMMUNITY

디낚 바다낚시, 바다루어, 민물낚시, 민물루어 등 낚시 장르별로 프로들의 다양한 포인트, 채비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www.dinak.co.kr

낚시사랑 좌대·유료터, 바다낚시, 민물낚시 등 포인트 설명에 특화된 커뮤니티로 낚시터 정보가 상세히 정리돼 있다. www.fishnet.co.kr

어부지리 조항에 특화된 커뮤니티다. 어종·지역별 조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조항 게시판 통해 출조 전 관련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http://afishing.com>

월척 중고장터가 활성화한 커뮤니티다. 중고 낚시용품 거래를 원한다면 이곳에서 유용한 물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wolchuck.co.kr>

APP

낚시가 국내 낚시 포인트 4천300개 정보를 보유한 낚시 전문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도를 통한 실시간 조항 정보, 주변 낚시인 모임, 거래장터, 이벤트 등 항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으면
시간이 멈추는 기분이다

새 소리, 풀벌레 소리
그마저도 없으면

바람 스치는 소리에
내 안의 심연과 만난다





승부보다 값진 동료애

야구동호회
본사·온산공장
교류전

글. 안중홍(정유1과)



경쟁 속에 피어나는 화합

온산공장의 야구동호회와 본사 야구동호회는 정기적으로 교류전을 열어 소통한다. 올해는 5월 25일 대회를 진행했다. 본사·공장 야구동호회원들을 비롯해 본사 사진동호회 회원과 가족 등 약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울산 성암야구장에서 열정과 화합의 한 판승부가 펼쳐졌다.

이상기후로 이른 더위가 찾아온 이날 본사·온산공장 야구동호회가 성암야구장(울산시 남구)에서 만났다. 현장에 합류한 본사 사진동호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팀원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즐거움과 긴장감이 뒤섞여 생생한 현장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 가운데 58명 회원을 거느린 공장 야구동호회는 ‘동호회 가운데 상징이 되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 아울러 38명이 활동하는 본사 야구동호회는 ‘야구를 통한 화합,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자’는 의미로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동행한 모든 직원들은 야구동호회 교류전에 대해 “사업장을 뛰어넘어 원활한 협업의 기분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조정현 사우(생산조정팀)은 “야구라는 공감대로 다른 팀·부서 구성원과 친해질 수 있고 서로 이해하며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교류전을 소개했다.

열정과 웃음의 한판승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전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자, 손경익 노동조합위원장 시구와 한혁수 노동조합사무국장 시타로 경기가 시작됐다. 양 팀은 정확히 코너에 꽂히는 제구력을 갖춘 투수, 어려운 공도 거뜬히 쳐내는 타자들을 통해 매우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치열한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장 한쪽 중계석에서는 이용현 사우(네트워킹강화팀)와 김진구 사우(장치설계팀)가 재치 넘치는 해설을 쏟아냈다. 두 사람은 그라운드에도 나서며 일당백 선수로 활약했다.

점수 차이가 벌어진 6회초, 이용현 사우가 타자로 나서 안타를 치며 경기 흐름을 바꿨다. 본사 동호회는 이 기회를 살려 역전까지 이뤄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역전을 당한 공장 동호회는 에이스인 김진구 사우를 마운드에 올리며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9회 동점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8대8 무승부로 이번 교류전이 마무리됐다.

온산공장 야구동호회장 유진열 사우(대외업무팀리더)는 교류전을 마친 뒤 “부상자 없이 잘 끝나 기쁘고 먼 사업장의 직원들이 같이 경기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거리 일터에서 일하는 다수 직원이 업무 외 활동으로 사적인 시간을 할애해 정기적인 대면 소통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야구동호회의 본사·온산공장 교류전이 8년 동안 지속되며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노사 각 리더의 적극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된 모습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동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 노사와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애정을 갖고 활동하리라 다짐한다. 

야구동호회 본사·온산공장 교류전 연혁

- ① 2012년 6월 23일
경남남해스포츠파크야구장
- ② 2013년 3월 9일
경주생활체육공원야구장
- ③ 2014년 11월 1일
경기도여주양섬야구장
- ④ 2015년 7월 11일
울산문수야구장
- ⑤ 2016년 6월 11일
양평솔밭야구장
- ⑥ 2017년 5월 13일
울산문수야구장
- ⑦ 2018년 5월 19일
울산성암야구장
- ⑧ 2019년 5월 25일
울산성암야구장



나의 영웅 당신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이야기

글. 김원섭(동력3과)

오전 근무를 마친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상주로 향했다. 입사 이래 25년 동안 다니는 길이지만 어머니를 뵈러 가는 발걸음은 늘 설렌다. 아침 초여름에 접어들어 오랜만에 낚시도 할 겸 가는 길에 미끼도 넉넉히 사서 고향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웬일로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수차례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뭔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부르던 그때, “아비야 나 좀 일으켜봐”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순간 하늘이 노래졌다. 어머니는 뒷방 군불 때는 아궁이 앞에 쓰러져 계셨다. 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뒤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날 읍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큰누이 집으로 모셔다 드리기로 결정했다. 뜬눈으로 밤을 샌 뒤 읍내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를 몇 차례 진료한 담당 의사는 얼마 전만 해도 혼자 잘 걸어오신 분이 혼자 거동을 못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혈압도 높고 고열이 있어 갑자기 링거 수액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며 빨리 큰 병원으로 모시라고 권했다. 형님 집과 가까운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로 어머니를 황급히 모신 뒤 MRI, CT 등 여러 검사를 진행했다. 저녁이 돼서야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잠시,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다. 일단 어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긴 뒤 호흡기를 꽂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나와 막내 누이는 어머니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사실 어머니 건강 상황은 여러모로 염려스러운 수준이다.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전보다 심해진 치매, 척추 염증 등 우리 5남매가 돌아가며 간병을 하는 데 한계를 느낄 만큼 몇 년 사이 더욱 악화됐다. 결국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낮과 밤 병간호를 시작했다. 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어머니는 당연히 병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다. 같은 병실 환자들은 둘째 치고 곁에 있는 간병인조차도 부담스러워했다. 당신의 몸보다 농사 걱정만 하는 어머니가 심히 염려됐다. 3주 뒤 우리는 어머니를 형님네와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다시 모셨다. 한 달 동안 병실에만 계시다보니 어머니 기력이 더욱 약해지신 듯했다. 비록 지금은 가냘프고 힘없는 모습이지만 한때 여장부라 불리던 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어쩌면 당신이 66년 살아온 시골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르는데도 여전히 발일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얼마 전에는 병원생활이 답답할 어머니를 위해 의료진의 허락을 겨우 얻어 가까운 자연휴양림으로 짧은 외출에 나섰다. 아들이 구운 고기를 맛있게 드신 어머니는 힘을 내 보조기로 걷는 연습도 하셨다. 지금의 내 나이에 홀몸이 된 뒤로도 굳건히 5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머니 손을 꼭 잡고서 한없는 사랑과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했다.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고 빨리 완쾌해 손자손녀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간절함을 안고 오늘도 근무를 마치고 대구행 기차에 올랐다.

“엄마, 빨리 나아서 고향집 가야지!”

행복 무게는 0kg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 사연

글. 이광동(동력4과)



아이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3~7세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 과제를 매주 아이와 함께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던 중 의미 있는 공모전을 발견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에서 주최하는 '가족사랑 사진공모전'이다. 마침 주제와 꼭 맞는 사진이 생각나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였다. 목적을 두고 촬영한 것이 아닌 우리가족의 일상이 담긴 사진이라 큰 기대 없이 출품했는데 얼마 뒤 뜻밖의 수상 소식이 들려왔다. 하물며 금상이란다.

출품한 사진은 아들과 본가에 방문했을 때 촬영한 것이다.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3대가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왔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발견한 아들이 놀이기구인 줄 알고 신나게 뛰어갔다. 손으로 의자를 들어 올리는 체어리프트라는 운동기구인데 어린 손자가 다치기라도 할까 어머니는 금세 아이를 앉고 기구에 걸터앉으셨다. 30년 전 나를 늘 안아주시던 그 품은 이

제 손자가 독차지했다. 내친김에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들어올리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세월의 무게였을까. 자녀를 정성으로 키우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채 지금껏 달려오신 어머니의 노고에 새삼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찌 보면 흔한 일상 속 장면이지만 이 사진이 유독 기억에 남은 이유다. 작품명도 역설을 담아 <즐거움의 무게는 0kg>으로 지었다. 가족이 주는 행복은 쌓이고 쌓여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말에는 첫째 아들과 주로 시간을 보낸다.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이 덕분에 이곳저곳 함께 다니며 추억을 만들어간다. 먼 훗날 아이가 장성했을 때 어떠한 아버지로 기억할지 사뭇 기대된다.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마음 고운 아내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 고마움을 전한다. 다음번에는 가족 모두가 담긴 사진으로 다시 한번 공모전에 도전하려 한다. 🌻



밤하늘

빛의 마술

핀란드 오로라 탐방

글·사진. 정의진
(자유여행 전문사 살레트래블앤라이프)

미지에 대한 호기심은 막연한 동경을 넘어 판타지를 심어준다.
언제부턴가 여행지 버킷리스트 상위에 꾸준히 오르는 북유럽 오로라
여행이 그러한 곳이다. 뉘 놓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머나먼 여정의
수고가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오로라의 묘한 감동은 인생의 목표
하나를 이룬 것과 같다.



1월 1박3일 홍콩 덤섬수업	2월 2박3일 일본 미술관 탐방	3월 3박4일 베트남 크루즈 여행	4월 4박5일 태국 요리수업	5월 5박6일 몽골 유목체험	6월 6박8일 스페인 축구관람	7월 7박8일 핀란드 오로라 탐방	8월 8박9일 터키 역사기행	9월 9박11일 쿠바 올드카 여행	10월 10박12일 볼리비아 바리스타 수업	11월 11박13일 오스트리아 클래식 공연	12월 12박13일 인도 명상기행
--------------------------	----------------------------	-----------------------------	--------------------------	--------------------------	---------------------------	-----------------------------	--------------------------	-----------------------------	----------------------------------	----------------------------------	-----------------------------

Travel Information

비행시간 약 13시간
시차 한국보다 7시간 느림
 (서머타임 기간 6시간)
화폐 유로, EUR € (1유로 ≈ 1,300원)
교통수단 렌터카, 기차, 버스 등

여행 정보 추천 사이트

- ▶ 핀란드 관광청
www.visitfinland.com/ko
- ▶ 핀란드 기상청(오로라 지수 확인)
<https://en.ilmatieteenlaitos.fi/auroras-and-space-weather>
- ▶ 로바니에미 관광청
www.visitrovanieniemi.fi
- ▶ 라플란드 관광청
www.visitlapland.com

7박8일 핀란드 오로라 여행 추천 일정

*북유럽의 오로라는 9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만 나타나며 여름에는 오로라 관측이 불가능하다.

- DAY 1** 항공편 이용 → 핀란드 헬싱키 경유 → 로바니에미 도착 뒤 휴식
DAY 2 산타클로스 마을 관광 → 로바니에미의 과학체험관 악티쿰 관람
DAY 3 사리셀카로 출발 → 사리셀카 유리 이글루 호텔 도착·핀란드식 사우나 즐기기 → 오로라 헌팅투어 → 유리 이글루에서 오로라를 바라보며 휴식
DAY 4 허스키 썰매, 스노모빌 등 겨울 액티비티 즐기기 → 오로라 헌팅투어 → 유리 이글루에서 오로라를 바라보며 휴식
DAY 5 헬싱키로 출발 → 헬싱키 도착 뒤 원로원 광장, 헬싱키 대성당 등 관광
DAY 6 템펠리아우키오 교회 → 키아즈마 현대미술관 → 포름 쇼핑몰·무민숍 방문 → 아카데미아 서점
DAY 7 중앙 우체국, K수퍼마켓 기념품 쇼핑 → 헬싱키 공항 이동 뒤 항공편 탑승
DAY 8 귀국(기내 1박)





- 1 유리 이글루와 통나무 캐빈이 결합된
카슬라우타넨의 켈로 글라스 이글루 객실
©Kakslauttanen Arctic Resort
- 2 천장까지 유리로 된 카슬라우타넨 유리 이글루 호텔
©Kakslauttanen Arctic Resort
- 3 치마 자락이 펠릭스처럼 아름답게 춤을 추는 오로라
©Valtteri Hirvonen_Kakslauttanen Arctic Resort
- 4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로베니에미의
산타마을
- 5 순록 썰매 사파리와 결합된 오로라 투어
©Valtteri Hirvonen_Kakslauttanen Arctic Resort



추천 Point

오로라 헌터들의 성지, 핀란드

핀란드 국적이긴 핀에어가 우리나라에서 헬싱키까지 직항 편을 운행하고 있어 북유럽 여행이 생각보다 수월한 편이다. 오로라는 북극권에 가까운 핀란드의 북쪽 라플란드(Lapland) 지방에서 관측 가능한데 로바니에미(Rovaniemi)와 사리셀카(Saariselkä)의 경우 대도시처럼 인공의 빛이 많지 않아 오로라 관측 최고의 명소로 손꼽힌다. 연중 200일(9월~3월)여 일이나 오로라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도 핀란드가 오로라 명소로 꼽히는 데 한몫을 한다.

오로라 핫스팟

① 로바니에미

북극권 바로 남쪽에 위치한 라플란드의 주도다. 빛 공해가 적고 시야가 넓은 곳이라면 시내 어디서든 오로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중 아크띠꿈 박물관 뒤편 강변에 있는 아크틱 가든과 오우나스바라 언덕 꼭대기를 추천한다. 스키리조트 방향으로 강과 밤하늘을 함께 볼 수 있는 오로라 명소다.

② 사리셀카

라플란드 이나리(Inari) 남쪽에 위치한 핀란드 최대 오로라 명소다. 스키, 하이킹, 온천 등 활동을 제공하는 인기 관광지이자, 벽과 천장까지 온통 유리로 뒤덮인 유리 이글루로도 유명하다.

Finland

관광 Point

오로라 투어 노하우

오로라가 가장 잘 나타나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다. 북쪽 하늘에 작은 띠로 시작되는 오로라는 밤이 깊을수록 하늘 전체에 퍼져 치마 자락이 펴려이듯 아름답게 춤을 춘다. 핀란드 기상청 사이트 등을 통해 미리 오로라 지수를 확인한 뒤 불빛이 없는 장소에 자리를 잡고 오로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된다. 문제는 혹독한 추위인데, 라플란드의 겨울밤은 영하 20~30℃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다반사라 스키복으로 온 몸을 감싸고 털모자, 페이스 마스크, 목도리, 장갑, 핫팩 등 방한 용품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조금 더 다이내믹한 오로라 체험을 원한다면 시내 여행사가 제공하는 오로라 헌팅 투어에 참가해도 좋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오로라가 잘 보이는 장소로 이동한 뒤 따뜻한 텐트 안에서 오로라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수록 썰매, 스노모빌 등 짜릿한 액티비티와 결합된 오로라 투어도 인기 있다.

오로라 촬영 전 기억하세요!

오로라를 제대로 촬영하고 싶다면 DSLR카메라와 삼각대는 필수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카메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가능한 릴리즈(리모트컨트롤)를 준비해야 하지만 릴리즈가 없다면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우선 카메라를 수동 모드로 바꾼 뒤 달이 얼마나 밝은 지에 따라 조리개 F2.8~4, ISO 800~3200, 셔터 스피드 10~30ch 정도로 설정한 뒤 수평을 잘 맞춘 삼각대 위에 고정한다.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므로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한다.



체험 Point

설원 위 3대 액티비티

겨울에 라플란드를 찾는 수많은 여행객들은 밤에는 오로라를 관찰하고 낮에는 설원에서 겨울 액티비티를 즐긴다. 3대 인기 사파리로 허스키 사파리, 순록 사파리, 스노모빌 사파리가 있으며 이외에도 얼음낚시, 스노슈잉(설원용 신을 신고 걷는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짜릿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다.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로바니에미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테마파크처럼 조성된 산타클로스 마을에 가면 하얀 수염이 배까지 내려온 푸근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엘프들이 열심히 일하는 산타클로스 우체국을 구경하거나 마을의 중심을 관통하는 북극권 한계선을 넘나들며 여권에 북극권 스탬프를 찍는 일도 핀란드의 겨울이기에 가능한 진기한 경험들이다. 🌸

추위 걱정 없는 이글루 속 오로라 관찰

추위 속에서 오로라를 기다릴 자신이 없다면 천장까지 유리로 된 포근한 객실에서 오로라를 감상하는 유리 이글루 호텔을 이용할 만하다. 오로라를 보지 못한다 해도 까만 밤하늘에 가득 찬 별무리와 영화 <가위손>의 한 장면 같은 스노우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최근에는 이글루 외에 다양한 형태의 오로라 관측용 숙소가 많이 생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① Arctic TreeHouse Hotel 로바니에미 ★★★★★

로바니에미의 산타 마을에서 운영하는 테마 호텔로 32개의 독채형 객실 모두 한쪽 벽이 유리로 지어져 오로라와 더불어 아름다운 라플란드의 숲을 감상할 수 있다.

② Arctic SnowHotel & Glass Igloos 로바니에미 ★★★★★

로바니에미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시네타(Sinettä)의 한적한 호숫가에 자리한 호텔로, 유리 지붕을 통해 밤하늘을 더욱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

③ Kakslauttanen Arctic Resort 사리셀카 ★★★★★

유리 이글루의 원조격인 리조트로 유리 이글루 객실 외에도 아늑한 통나무 캐빈과 유리 이글루가 결합된 켈로 글라스 이글루라는 독특한 객실을 운영한다.

④ Northern Light Village 사리셀카 ★★★★★

사리셀카 시내 인근에 위치한 독특한 스타일의 호텔로 지붕의 반이 유리로 된 독채 통나무집 형태의 객실을 갖고 있다. 다양한 오로라 헌팅 프로그램과 겨울 액티비티도 운영한다.

바다 건너 들려오는 섬의 노래

신안 박지도·반월도 당숲

글·사진. 전부순

1004의 섬으로 알려진 전라남도 신안군은
올해 4월 8일 천사대교 개통으로 암태도를
비롯해 안좌도·팔금도·자은도가 하나로
연결됐다. 특히 안좌도에 딸린 박지도와
반월도는 섬 속의 섬이었으나 안좌도
본섬과 박지도, 반월도가 연결돼 한 번에 섬
세 곳을 돌아볼 수 있다. 썰물 때면 갯벌로
둘러싸여 자연 그대로 청초한 민낯을
내보이는 아름다운 섬이다.







Travel Information

주소

전남 신안군 안좌면 토촌길

가는 길

서울 → 목포IC → 천사대교 →
암태도 → 안좌도 → 박지도 →
반월도

산책 코스

안좌면 두리선착장 - 퍼플교 -
박지도 등산로 - 퍼플교 -
반월도 등산로 - 두리선착장
*총 10.8km 남짓

고즈넉한 섬 보금자리 박지도 당숲

마을 지형이 '바가지'처럼 생겼다 해서 혹은 박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 하여 이름 지어진 박지도는 주변이 울창한 후박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1700년대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이곳에는 현재 주민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좌도 두리항에서 박지도로 가기 위해 총길이 1,462m의 퍼플교(Purple Bridge)를 건너면 박지마을 입구다. 이정표를 따라 왼쪽 해안길로 접어들어 20여 분 동안 잘 정비된 해안산책

로를 걷다보면 갯벌을 막았던 간척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전에는 바다였던 것을 간척으로 얻은 논이다. 약 2km의 해안로 오른쪽은 예덕나무와 멸종위기종 호랑가시나무가 있고, 등산로를 정비하며 세운 돌탑도 이채롭다. 오른쪽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오르면 고즈넉한 후박나무 고목 아래에 박지마을 할아버지 제당이 자리한다. 오랜 기간 주민들의 신앙 대상이었던 '당숲'이다.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에는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제사를 모셨다. 박지마을 뒷산 봉우리에 있는 수백 년 된 팽나무는 '당할매'로 불린다.

다시 등산로를 5분여쯤 걸으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당샘(우실샘)이 나온다. 예전에 제사를 모실 때는 반드시 이 샘물을 제수로 사용했다. 전라남도는 이 샘을 복원해 연인들의 사랑 언약 장소인 사랑샘으로 만들 방침이다. 서북쪽으로 조금 오르면 슬픈 전설을 머금은 암자터가 자리해있으며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 정상을 오르면 주름지고 둥그런 기바위가 버티고 있다. 명칭처럼 산을 오르면서 기(氣)를 받기에 안성맞춤이다. 바로 앞 바다 너머에는 반월도 어깨산이 있다. 한적한 사스레 피나무 숲길을 지나 20여 분 내려가면 안좌도 두리항에서 건너오는 다리 끝 지점, 박지항에 닿는다.





여기가 숲을 이룬 오래된 당이 있다. 300년 이상 된 팽나무가 울창하고 후박나무가 우실을 이뤄 오랜 섬 역사를 대변한다. 예전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당제를 올렸지만 지금은 중단된 지 오래다. 당 앞에서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반월마을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반월마을 당숲은 2013년 제 14회 전국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했다. 산림청에서도 2017년 이곳을 섬 문화 유적을 간직한 숲으로 인정해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 🌳

풍요의 섬마을 반월도 당숲

길손은 다시 반월도로 향한다. 반월도는 목포 서남쪽 24km, 안좌도 서남쪽 6km 지점에 있다. 섬 모양이 반달 같다 하여 '반드리'라 불렀고, 풍수지리로는 토끼 형국이라 '토끼섬'으로도 불렸다. 세종실록에는 1450년 군마 40여 필과 관리를 위해 사람이 입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지항에서 반월도까지는 915m, 15분여를 걸어야 한다. 이정표를 따라 어깨산을 오르다 보면 산 중턱쯤 오래된 동백나무 아래 반월도 할아버지당의 큰딸신을 모신 큰딸제당이 있다. 여기서 잠시 오르면 돌탑 다섯 개가 서있다. 반월도에 사는 장상순 씨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쌓은 탑으로, 박지도 해안산책로에 세운 돌탑도 그가 쌓았다.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능선을 오르면 뒤편

로 안좌도가 보인다. 정상에 오르면 쪽쪽 자란 소나무들의 터진목 사이로 안좌도, 대서도, 수지도, 사지도, 비금도, 암태도, 자은도, 노양도, 부소도, 장산도, 옥도, 하의도, 신의도가 파노라마처럼 조망된다.

정상의 널찍한 바위에 앉아서 잠시 쉬다가 다시 5분여쯤 내려가면 오른쪽 터진목 사이로 만호(萬戶)바위가 있다. 여기서 비금도, 사지도, 수치도를 조망할 수 있는데, 섬 주민들의 집이 만호가 보일 만큼 전망이 좋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왼쪽으로 내려가면 퇴촌마을로 넘어가는 길마재다. 재의 모양이 소 안장처럼 생겼다 하여 얻은 이름으로 이곳에는 시누대가 우거져 있다. 재에서 쉬엄쉬엄 내려가면 반월마을이다.

반월마을은 인동장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갯벌과 갯골로 이뤄진 섬마을에는 약 600여년 전 주민이 들어와 살며 심은 느릅나무, 팽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송악 등 난대수종 20



1 안좌도에서 박지도로, 박지도에서 다시 반월도로 연결된 V자형 친환경 목조다리인 퍼플교

2 박지도의 바람의 언덕

3 약 600여년 전 주민들이 심은 느릅나무, 팽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송악 등 난대수종 20여 기가 숲을 이룬 반월당

4 박지도에서 반월교로 넘어가는 다리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길손들

5 썰물이면 갯벌에 쌓아 만든 돌다리길이 나타난다

채움 위한 머릿속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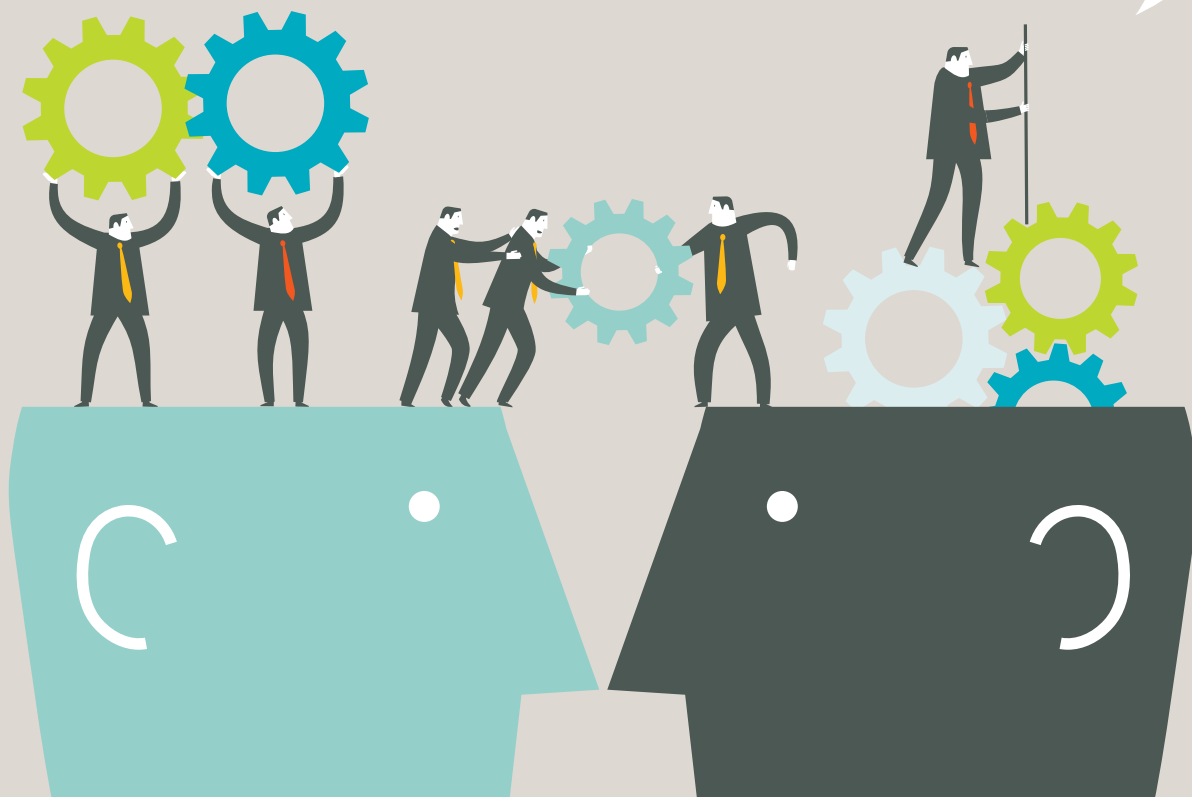
사고력 기르기

글. 김경록
(생각코칭컴퍼니 대표, <내 머릿속 청소법> 저자)

미국 심리학자 샤드 햄스테더 박사는 “사람이 떠올리는 생각이 하루에 5~6만 가지”라고 말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의 비움과 채움 과정이 필요하다.

복잡한 머릿속은 정리 안 된 창고와 같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다른 잡념들로 정작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사고력은 금세 바닥나고 만다. 사고력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힘’이다. 보통 사고력이라는 단어는 창의적, 논리적, 수학적 등 다양한 수식어와 함께 쓰이는데 모든 사고의 근원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청소와 정리가 필요하다.

머릿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정리를 해야만 필요한 순간에 ‘사고력’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사고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생각을 정리해야하는 데도 훈련방법이 있다.



1.

두뇌청소의 시작과 끝

생각을 정리하는 데 탁월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생각은 적지 않으면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첩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업무나 일정 등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탁월한 머리보다 무딘 연필이 앞선다'는 독일 속담처럼 무언가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두뇌는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주기적으로 책상을 정리하듯 생각도 주기적으로 꺼내어 놓음으로써 정리한다.

두 번째, 기록을 잘 하는 사람은 생각 분류도 탁월하다. 많은 이들이 '할 일 목록'을 적는 것만으로도 생각 정리를 다했다고 착각하지만 기록은 그 시작이지 마지막 과정이 아니다. 기록에 이어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출근 뒤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었다면, 나만의 분류기준을 만들어서 새롭게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생각의 나무, 로직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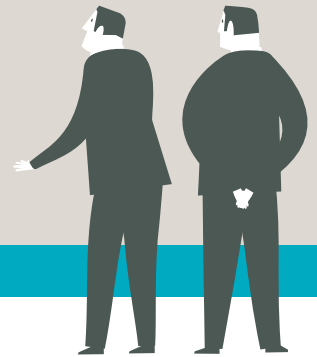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더 이상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로직트리'를 활용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로직트리는 명칭처럼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이다. 줄기를 시작으로 큰 가지가 뻗어나가고, 큰 가지는 몇 개의 작은 가지로 나뉜다. 이런 구조는 한눈에 맥락을 볼 수 있고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 유용하다.

로직트리는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첫 번째는 왓(what)트리다. 주제에 대한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무엇'을 반복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한다. 또한 중복과 누락을 피하고 전체를 한눈에 확인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왓트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았다면 와이(why)트리로 발견된 문제에 대한 현상과 원인을 파악한다. '왜'를 반복하며 인과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발견한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하우(how)트리를 활용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어떻게'를 반복 질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다.

3.

군더더기 없는 '칠하원칙' 정리

로직트리를 통해 막힌 사고를 해결했다면 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생각을 정리할 차례다. 말하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육하원칙이 있듯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칠하원칙이 있다.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 어떻게(How) 요소 외에 '얼마(how much)'를 포함한 7가지 기본 원칙이다. 군더더기 없이 사고를 정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령, 행사를 구상한다면 프로젝트의 주제, 대상, 진행 시기와 일정, 장소, 목적, 방법 등 육하원칙 요소에 덧붙여 예산을 비롯한 소요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항목까지 덧붙인다. 🌻



성공적인 발표를 위한 로직트리 활용 예시

왓(What)트리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
나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행동적 측면

- 성실히 자료 준비하기
- 발표에 어울리는 말투 익히기

정신적 측면

- 정신력 관리하기
- 목표 관리하기

와이(Why)트리
왜 정신력이
부족한가?

부정적 생각

- 발표를 망칠까봐 걱정이다.
- 직장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신감 부족

- 평소에도 표현이나 의견제시가 서툴다.
-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심한 긴장감

- 5인 이상이 모인 넓은 공간에 특히 긴장한다.
- 중요한 일을 망쳐본 경험이 있다.

하우(How)트리

준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 목표를 세우기

- 전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 특히 강조할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예상 장소에서 모의 발표하기

- 모의 발표를 통해 막히는 부분은 체크한다.
- 거듭 연습해 반복되는 실수를 줄인다.

상호작용의 좋은 예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약한 힘으로 생성되는 두 개 이상의 분자 집합체를 초분자라 일컫는다. 초분자에서는 분자 단독의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기능이 나타나는데 호스트(host)와 게스트(guest) 방식이 그 중의 하나다. 주인과 손님의 역할로 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작용을 통해 타인을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를 발견해본다.

S-OIL
변화와 성장의
화학법칙

[호스트-게스트]
이야기

호스트-게스트 법칙

자연계 이론 속 적재적소 맞춤 생산

1

화학은 분자단위의 반응과 그에 따른 물성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반응의 과정을 분자 단위 크기로 볼 수는 없지만 물체 단위로 키우면 변화를 볼 수 있다. 가령 종이가 타면 불꽃과 열, 재를 통해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이렇듯 연소반응만 봐도 빛의 발생에 대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열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것과 이산화탄소처럼 느낄 수 없는 것, 재와 같이 만질 수 있는 것과 수증기처럼 만질 수 없는 것이 공존한다. 물질의 변화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의 정방향도 있고 역방향도 있다는 말이다.

물의 경우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분자로 이뤄져있다. 그러나 수많은 물 분자가 모여 물이 되고 온도에 따라 고체나 기체가 된다. 화석연료인 원유(crude oil)는 수십 종의 화합물이 섞인 혼합물이다. 이 혼합물을 단일 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유과정에서도 같은 온도에서 비슷한 끓는점을 가진 여러 물질이 섞여 나오는데 불순물을 한 가지 물질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생산량 대비 경제성으로 볼 때 의미가 없다. 사용량은 많고 생산효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흔한 공산품처럼 단순히 기계로 물건을 대량생산하듯 순도 높은 제품이나 동일한 물질을 얻으면 좋겠지만 공정이 복잡한 화학 분야에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화학용어사전



호스트(host)-게스트(guest) 시스템

호스트 분자가 게스트 분자 또는 이온과 화합물을 형성하는 초분자 화학의 한 분야로 주인 역할의 모체 화합물에 손님 역할을 결합되거나 통과하는 물질을 설명하는 이론

2

화학자들은 자연계에서 물질 상호 간의 작용을 이론화해 호스트(host)-게스트(guest) 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주인과 손님의 작용계다. 즉 일정한 형태의 분자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양에 딱 맞는 크기의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고,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흡착제나 촉매로 활용되는 제올라이트라는 광물은 알루미늄, 실리카, 산소가 주성분인 미세 다공성 무기물이다. 순수한 제올라이트는 기공의 구조나 모양이 일정해 구조를 조절하면 선택적으로 기체와 액체를 원하는 크기로 분리할 수 있고 동일한 크기의 분자로 잘라낼 수도 있다. 주인이 큰 집을 만들면 많은 손님이 들어올 수 있고 작게 만들면 적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듯 제올라이트는 변화의 모체다. 유기물에도 이런 호스트-게스트와 같은 물질이 있다. 사이클로덱스트린이다. 글루코스의 개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이처럼 주인-손님 시스템을 이용해 의약품과 흡착제 등에 긴요하게 이용한다.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온도를 올리면 똑같은 빵이 항상 같은 모양으로 구워져 나오는 것과 같다.

호스트-게스트 법칙

주인과 손님의 긍정적 상호작용

3

조직에서 꼭 필요한 인재상을 정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거나 승진 조건에 적합한 직원을 선별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호스트-게스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물건과 물질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맞춤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에서는 변수가 많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야말로 보이는 외면과 보이지 않는 내면을 포함해 많은 변화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될 수도, 손님이 될 수도 있다.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 내에 들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공식은 있다. 어디서든 좋은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서로에게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을 보듬는 아늑하고 편안한 집, 직원의 능력을 북돋는 조직의 틀을 짓는다면 그 조건에 맞는 이들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호스트-게스트 법칙

최상의 조직에는

최적의 인재



글.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촉매공학박사이자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겸임교수이다. 한국화학공학과
울산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수소산업협회 이사다.

1790년대에 영국 윌리엄 머독이 석탄 가스를 이용한 조명등을 실험한 결과 가스등이 처음 개발됐다. 석탄을 밀폐 용기 내에서 가열하면 수소·메탄·일산화탄소·프로판·부탄·아세틸렌·에틸렌 등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체의 혼합물을 연소시켜 밝은 빛을 내는 것이 가스등의 원리다. 값싼 가스등일수록 불빛이 노랑이나 오렌지색에 가까웠다. 가스등은 양초나 석유램프보다 냄새가 덜 났고 가격이 싼으며 사용하기도 수월해 1800년대 후반에는 유럽 거리의 가로등과 실내조명이 가스등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암흑 밝힌 희망의 빛

노란 가스등 &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테라스>

불운한 화가의 꿈

<밤의 카페테라스>는 <자화상>, <해바라기>와 함께 빈센트 반 고흐(이하 고흐)의 그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지일 듯싶다. 8년 동안 7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지만 생전에 단 한 작품밖에 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의 화가 고흐에 대해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다. 내용 대부분이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롯됐다. 고흐는 완성된 그림은 물론 진행 중인 스케치들을 편지와 함께 우편으로 부쳤다. 800여 통에 달하는 이 편지글은 고흐의 고독과 갈등,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 등 다양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1888년 9월, <밤의 카페테라스>를 완성할 때쯤 고흐는 '램프와 밤하늘의 별 따위 그리고 모든 종류의 빛을 이용해 이 작품의 빛을 창조하고 싶다'는 편지를 테오에게 보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고흐가 1888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머물렀던 남프랑스의 작은



<밤의 카페테라스>
1888년·캔버스에 유채·81cm×65cm·오텔로 크렐러 뮌헨 미술관

마을 아름다. 화가의 말 그대로 <밤의 카페테라스>는 온통 환한 빛들로 가득 차 있다. 맑고 푸른 밤하늘에는 가로등처럼 크고 환한 별들이 반짝인다. 그림의 왼편에는 노란 등불을 밝힌 카페가 손님을 기다린다. 야외 테라스에 놓인 자리에는 드문드문 앉은 손님들과 주문을 받는 웨이터의 모습이 대담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노란 차양의 카페는 지금도 아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밤의 카페테라스>의 환한 색감이 암시하듯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고흐는 앞날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즐거움과 희망은 동료인 폴 고갱의 등장과 함께 급속도로 허물어진다. 고흐는 화가들의 공동 아틀리에를 꿈꾸며 고갱을 초청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화합하기에는 너무도 다른 성격이었다. 고갱이 두 달 만에 파리로 돌아갈 채비를 하자 그 김새를 알아챈 고흐는 고갱과 격렬한 다툼을 벌이다 컷불을 면도날로 자르는 자해를 하고 만다. 고흐의 정신착란과 함께 밝고 희망에 찼던 아를에서의 시간도 속절없이 끝났다. 이웃들이 '위험한 외국

인 화가가 아를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역 경찰서에 탄원했기 때문이다. 고흐는 1889년 초 아를의 셋집을 정리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요양소에 들어가야만 했다.

조명에 빛낸 희망

아를에서 완성된 고흐의 그림에는 노란색이 많이 사용된다. <밤의 카페테라스> 외에 <해바라기>, <노란 집>, <의자가 있는 방> 등 1888년 그림 중에는 유난히 노란색이 자주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밤의 카페테라스>를 채운 노란 등불의 빛이 고흐의 시신경 마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당시 고흐는 독하지만 값싼 술인 압생트에 다소 중독된 상태였고 시신경 마비는 압생트가 일으키는 부작용 중 하나였다.

<밤의 카페테라스>에서 카페를 밝히는 등불의 빛은 유난히 짙은 노란빛을 띠고 있다. 이 등불은 가스로 켜 조명이었을 것이다. 고흐가 생존하던 19세기 후반까지 백열등은 매우 드물었다. 1879년 미국 발명가 에디슨이 잘 끊어지지 않는 필라멘트를 개발해 백열등을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밤의 카페테

라스>가 그려진 1888년 무렵까지도 백열등은 뉴욕 같은 대도시나 큰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었다.

석탄가스를 이용한 가스 조명은 1820년 무렵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호롱불과 비슷한 램프에 비해 가스등은 무척이나 밝고 편리했지만 만능 조명은 아니었다. 가스등을 켜 극장에서는 가스 냄새 때문에 두통을 일으키거나 구토하는 관객들이 적지 않았다. 화재 위험도 큰 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에디슨은 냄새가 나지 않고 화재가 날 염려도 없는 전기 조명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회고 투명한 빛깔의 백열등에 비해 가스등은 노란색의 빛을 발한다. <밤의 카페테라스> 외에도 밤의 풍경을 그린 19세기 후반 작품들 중에는 노란 조명이 등장하는 그림들이 많다. 부모의 반대로 그림을 접고 생업에 종사하다 뒤늦게 화가의 길로 들어선 영국 화가 존 앳킨슨 그림쇼의 작품에도 노란 불빛이 등장한다. 주로 밤풍경을 묘사하면서도 우울함과 쓸쓸함에 작은 위로를 건네듯 노란 가로등과 조명을 꼭 등장시킨다.

당시 화가들이 묘사한 노랑은 단순한 조명의 빛깔만은 아니었을 테다. 더욱이 고흐의 그림에 등장하는 환한 노란빛과 밤하늘의 맑은 파란빛은 1888년 여름 고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희망과 기대의 빛깔이다.



존 앳킨슨 그림쇼 <리즈, 보어 레인의 불빛>
1881년 캔버스에 유채·91cm×62cm·리즈 뮤지엄 앤 갤러리



글.

이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원경(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필드 여왕 가리는 짜릿한 승부

S-OIL 챔피언십

제13회 S-OIL 챔피언십이 6월 7~9일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 72/6,553야드)에서 개최됐다. 총 상금 7억 원, 우승 상금 1억4천만 원 규모로 막을 올린 대회는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온 올림픽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대한민국 올림픽의 주역인 진중오(사격)·임효준(쇼트트랙)·남현희(펜싱)·곽윤기(쇼트트랙) 선수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하는 영상을 통해 제주로 성화를 전달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진중오 선수가 현장에 직접 나타나 성화 봉송을 시작해 프로암 참가고객과 SBS골프 채널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승자뿐 아니라 2위와 3위에게도 메달을 수여해 스포츠정신을 가리는 S-OIL 챔피언십만의 전통은 올해도 이어졌다. 또한 구도일 캐

릭터와 제주도 돌하르방을 배치해 우리 계열주유소를 형상화한 구도일 홀(16번 홀), 그간 역대 챔피언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대 우승자 홀(18번 홀), 구도일 패밀리 디자인의 각 홀 안내보드 등을 대회장 곳곳에 배치해 갤러리들의 시선을 잡아챘다.

‘Queen of Queens’라는 대회 슬로건 아래 역대 우승자 중 시드가 없는 양수진, 변현민이 추천 자격으로 출전했고, 시드권자 홍란, 박지영, 디펜딩 챔피언 이승현이 출전해 우승경쟁에 뛰어들었다. 24시간 이상 이어진 짙은 안개로 1라운드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3라운드 54홀의 대회는 2라운드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하게 되면서 여왕 자리를 향한 도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1라운드에서는 장하나





가 단독 1위로 마무리하며 올해 시즌 첫 승리에 시동을 걸었고, 시즌 2승 사냥에 나선 수퍼루키 조아연은 공동 2위에 오르며 우승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2라운드에서는 박빙의 승부로 경기 내내 순위가 얹치락뒤치락한 끝에 18번홀 마지막 퍼팅에서 우승자가 결정됐다. 대회 첫날 공동 4위에 머물렀던 최혜진이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며 장하나·박지영의 추격을 1타 차로 제치고 최종 합계 12언더파 132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메달 수여는 카운트 백 방식을 적용해 박지영이 은메달, 장하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혜진 선수는 시즌 3승째를 거두면서 독주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세계 랭킹도 21위로 도약했다. KLPGA투어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1라운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파이널 라운드인 대회 마지막 날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생중계됐다. 🌿



금·은·동 시상식

우승 최혜진
2위 박지영
3위 장하나

S-OIL NEWS



2018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2018년 활동과 성과에 기초한 지속가능성보고서(통권 제12호)가 6개월의 제작과정과 외부기관 검증을 거쳐 7월 4일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창출한 가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나누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활동과 성과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수록했다. 보고서에 소개된 27개의 이슈는 설문조사, 인터뷰, 패널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참여와 최고 경영진 검토, 중대성 매트릭스 분석 등 체계적인 중대성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아울러 비전 2025 등 전략체계와 경영활동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지속가능성 성장을 향한 실현 의지를 담았다.

콘텐츠는 이해관계자인 C.E.O.(Customers·Employees·Owners & other stakeholders) 중심으로 구성해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서술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주요 성과들을 섹션 구성해 접근성을 높였다. 디자인의 경우 '좋은 기름 구도일'을 콘셉트로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업 영역을 모티브로 친 환경 요소를 더해 하나의 풍경을 구현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개성을 명확하게 구축했다. 또한 인포그래픽, 사진을 활용한 단순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PDF 다운로드 경로

홈페이지(www.s-oil.com) > 상단 메뉴바 Sustainability 클릭

국가서비스대상 2년 연속 주유소부문 대상

우리회사가 6월 26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개최된 '2019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에서 2년 연속으로 주유소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기관을 공모하고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우리회사는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혁신을 거듭하며 정유·석유화학·유통 분야를 포괄하는 에너지·화학 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광고 캠페인, 프로모션, 멤버십·제휴카드 등 마케팅활동과 핵심경쟁력인 품질·서비스를 시대에 맞게 향상해온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JULY 2019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장학금 전달

우리회사가 6월 18일 해양경찰청(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에서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24명에게 5천만 원을 전했다. 이들 유자녀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회사의 학자금 지원을 받는다. 우리회사는 2013년 민간기업 최초로 해양경찰청과 지속적 후원 협약을 맺고 해양경찰과 가족을 위한 해경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유자녀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공상 해경 격려금 지원, 영웅 해경 표창, 해경 부부 휴(休) 캠프 등 다양한 해경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발대식

우리회사가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올해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발대식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우리회사가 쾌척한 후원금 2억5천만 원은 한국수달보호협회·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한국조류보호협회·한국두루미보호협회 등을 통해 수달·두루미·어름치·장수하늘소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와 저소득가정 어린이 교육, 임직원 봉사 등 캠페인 활동에 쓰인다. 우리회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기업 최초로 지난 2008년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달콤 고소한 추억 빛기

HYC공장봉사단 복지관 어르신 동반 떡케이크 요리 활동

글. 피준호(탈황1과)



봉사활동 전날 밤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다음날 일정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선잠에 들었다.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니 보슬비가 내리는 정도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고 최종 장소인 방어진 전하동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한 어르신이 전날 곳은 날씨로 나들이에 지장이 있을까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고 창밖만 바라봤다고 이야기했다. 우리의 활동이 어르신들께 소중한 약속이자 기다려지는 시간임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은 전하동에 위치한 떡케이크 공방이다. 중구노인복지관 간사의 인사말에 이어, 꽃 앙금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에 대한 강사의 설명을 들었다. 다양한 색으로 물들인 앙금으로 여러 송이의 꽃을 만들어 떡 위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나뭇잎으로 장식하는 활동이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꽃 만들기가 힘들다며 앓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두 명의 강사가 어르신을 찾아다니며 일대일로 자세히 설명하며 체험을 도왔다. 언제 그랬냐는 듯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은 앙금으로 빚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며 탄성을 내질렀다. 서로 만든 꽃을 앞에 두고 연신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마음에 새겼다.

오전 체험을 마친 뒤 우리는 점심식사를 위해 동천체육관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활동 때마다 느낀 점이지만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사는 서로의 친목을 쌓는 의미 있는 기회다. 이날 체험 내용이 매우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전해 들으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부서가 앞으로도 회사 안팎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모범이 되는 부서로 성장하길 바란다. 🌻





이기봉 상무보(대행, 영업전략부문장)→
상무보(영업전략부문장)

보직변경

07.01

박은정(일반사무직2급.자재관리팀)→
검사기술팀

김수진(일반사무직2급.생산회계팀)→
자재관리팀

07.08

김순식(1급.시설투자기획팀리더)→
TC2C TFT 팀리더

유인호(2급.장치설계팀)·백승민(3급.공정
Upgrading추진부 공정혁신3과장)·김관희
(4급.시설투자기획팀)→TC2C TFT

정낙림(3급.전수수급최적화팀)→
전수수급최적화팀(TC2C TFT 파견)

입사

07.08

안다연(전임법무원.법무팀)

정년퇴직

06.30

김기환(1급.총무부문장 보좌역)

퇴직

06.14

김경희(일반사무직1급.검사기술팀)

06.24

이인록(일반사무직2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

06.30

김장원(2급.직영네트워크관리팀)
김성훈(3급.수원지사)

부음

06.07 정종신(Alkylation1과) 빙부

06.10 박종운(HYC과) 빙부

06.11 정희윤(남양주지사) 빙부

06.20 손병기(정유3과) 모친

06.21 박정민(안전대응팀) 외조모

06.24 권길상(FCC1과) 빙모

06.30 박수성(아로마틱생산1과) 빙부

07.01 이인용(정유2과) 빙모

07.02 이관호(생산회계팀) 부친

결혼

06.16 김차룡(정유3과) 아들

07.13 박정우(판매계획/분석팀)

사보 <S-OIL>은
임직원 여러분의
참여를 고대합니다



사보 편집실에 다양한 이야기를
제보해주세요.
개인 일상을 비롯해 회사와 가정에서
동료·가족 등과 어울린 사연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풍경>
<두런두런 이야기방> 등 지면에
뜻있게 기록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 sabo@s-oil.com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고전 속 핵심가치>
열정 - 행백리자반구십(行百里者半九十)
현재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김육현(유황1과)



<함께하는 풍경> 챔피언스 클럽 인센티브 투어 후기
고객을 위한 좋은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신 대표자
분들 모두 멋집니다. 안성찬(계기1과)



<두려운 이야기> 스페인 여행기
기품 있는 여행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강영석(반석주유소 전북 진안군 부귀면 전진로)



<꽃청춘 수학여행> 스페인 축구 관람
가보고 싶던 곳이라 관심 갖고 기사를 봤습니다.
권민수(고객.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마을숲을 걷다> 포항 덕동마을 숲
공기 좋고 볼 곳도 많아 부모님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태원(계기1과)



<취미탐구생활> 스펙형 취미 정보
건강한 마음으로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네요.
전영조(고객.전북 군산시 해망로)



<햇살나눔> 제주 햇살나눔 캠프 후기
봉사로 나누는 삶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정재웅(직영주유소 전북 군산시 옥산로)



<독자마당> 퀴즈
우리말 바로 쓰기 코너로 공부가 됩니다.
이상현(서진주충전소 경남 진주시 판문로)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총 다섯 군데)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나 잘못된 우리말 표현을 올바르게 써주세요.

01

그 업무는 제가
①할게요. ②할게요.

02

이번 사안은
①난이도 ②난도가 높군요.

6월호 퀴즈 정답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퀴즈 당첨자

블루투스스피커

김재한(윙활생산2과) • 김민지(아로마틱생산1과 백현욱 사우 가족) • 김진은(품질관리팀) • 이용문(동부네트워크관리팀)

휴대폰보조배터리

이수호(정유2과) • 김민수(품질관리팀) • 권오학(계기3과) • 조성철(HR기획팀 김병주 사우 가족)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01 이곳에 도착할 ① 즈음 ② 쯔م 연락주세요. →
이곳에 도착할 '즈음' 연락주세요.

▶ '즈음'은 '일이 어찌 될 무렵'을 뜻하는 의존명사로 관형어인 앞 말과 띄어 적으며 줄임말은 '쯔'입니다. '쯔'는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내일쯔, 중간쯔 등과 같이 명사 뒤에 붙여 적습니다.

02 아시아 시장 ① 너머 ② 넘어 세계로! →
아시아 시장 '넘어' 세계로!

▶ '넘어'는 동사로 넘는다의 동작이 포함된 의미이며, '너머'는 '산 너머 마을'과 같이 동작의 의미 없이 공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